

中原文化연구소 특별 초청강연회

1910년으로부터 100년째에 생각한다 -현대일본의 역사인식과 동학농민혁명-

일시 : 2009년 10월 22일 목요일 14:00~16:30

장소 :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 1층 회의실

주최 : 충북대 사학과

주관 :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中原文化연구소 특별 초청강연회

1910년으로부터 100년째에 생각한다 —현대일본의 역사인식과 동학농민혁명—

일시 : 2009년 10월 22일 목요일 14:00~16:30

장소 :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 1층 회의실

주최 : 충북대 사학과

주관 :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목 차

발표문 : 1910년으로부터 100년째에 생각한다. -현대일본의 역사 인식과 동학농민혁명- 1쪽

자료 1 : 현대 일본의 역사인식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하여- 11 쪽

자료 2 : 一次史料를 통해서 본 近代 韓日關係의 再構成 -1875년의 雲揚號事件으로부터 1894년 朝鮮王宮(景福宮) 占領事件까지- 29 쪽

자료 3 : 나카츠카 아키라 약력과 주요 저술 및 한일 시민교류활동 41 쪽

자료 4 : 歴史の偽造なただす, 日・韓の市民が一緒に行く. ... 43 쪽

1910년으로부터 100년째에 생각한다
-현대일본의 역사인식과 동학농민혁명-

일시 : 2009년 10월 22일 목요일 14:00~16:30

주관 :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1910년으로부터 100년째에 생각한다 -현대일본의 역사인식과 동학농민혁명-

나카츠카 아키라(中塚 明)
(일본, 나라여자대학 명예교수)

1. 머리말

내년 2010년은 일본이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탈한 1910년으로부터 100년째에 해당하는 해입니다. 일본에서는 ‘한국병합(韓國併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 ‘병합’이라는 말의 의미가 애매하기 그지 없습니다. ‘병합’이라는 말을 생각해 낸 사람은 1910년 당시 일본 외무성 정무국장(政務局長)이었던 쿠라치 테츠키치(倉知鐵吉)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완전히 없어져서 일본 영토의 일부가 되었다는 뜻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병탄(併呑)’ 등 “너무나 침략적인 용어는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일반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던 ‘병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위의 내용에서 볼 때 ‘병합’이라는 말은 일본이 한국의 국권을 강탈하여 식민지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측면이 있음과 동시에, 일본의 지배자들이 한국의 독립운동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병합’이라는 말을 사영했다고 하는 또 다른 측면도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이토 히로부미의 커다란 우려

오늘은 일본지배자들이 당시 한국의 민족운동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 당시 한국 통감(統監)으로 서울에 부임해 있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일본의 외무대신에게 보낸 전보(電報)와 의견서(意見書)를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러일전쟁 직후, 특히 1905년의 ‘을사조약(乙巳條約)’이후 한국에서는 격렬한 항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의병투쟁(한국에서는 의병전쟁)과 애국계몽운동이라는 커다란 파도가 일본 제국주의를 향해 맞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토는 1907년 4월, 하야시 타다스(林董) 외무대신 앞으로 “한국의 형세가 지금 상태로 진행되게 되면 해가 지남에 따라 ‘어넥세이션(Annexation, 合併, 併合)’은 점점 더 곤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의사(意思)가 어디에 있는가를 밝혀, 사전에 러시아의 승낙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전보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토가 염려한 바와 같이 이 전보가 있는 뒤 얼마 뒤인 6월에는 한국 고종(高宗) 황제의 밀사가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열린 제 2회 만국평화회의에 나타나, 일본의 불법(不法)을 (국제사회에 널리) 호소했습니다. 이토를 비롯한 일본정부는 큰 충격을 받고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맙니다. 그리고, 제 3차 한일협약(韓日協約)을 체결하도록 강요하여 행정과 사법의 실권을 통감에게 집중시키고, 한국의 군대도 해산시켰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병투쟁에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아래, 그 해 1907년 11월 6일 한국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외무대신 하야시 타다스 앞으로 장문(長文)의 의견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의견서는 현재 『일본외교연표병주요문서(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 상권(일본 외무성 편찬, 1955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의견서 가장 뒷부분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세계의 대세는, 거의 대부분 일본을 고립시키려 하는 기세가 그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열국(列國=列強)은 각자 이해(利害)관계의 대립도 있으므로 일본정부가 용의주도하게 비가 오기 전에 비새는 것을 고쳐 놓을 정도의 대책을 취하고 행동을 틀리지 아니한다면 쉽사리 고립당하는 일은 없겠지만, 정국에서 벗어나는 방책을 취한다든지 틀린 행동을 하게 되면 즉각 고립되고 말 것이다. 이처럼 중대한 시기에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본인은 최근의 상황을 숙고하고 숙고할 때 일본의 전도(前途)를 위한 걱정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 지 알 수 없어 감히 의견을 밝혀 여러분들이 숙려해 주기를 바란다.

이토는 이 의견서에서 영국의 대일(對日) 태도가 냉담하게 변하고 있고, 독일은 더욱 반일주의(反日主義)이며, 미국도 이민문제(移民問題) 등으로 대립의 징조가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중국 동북의 '만주(滿州)'에 대해 일본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방책을 잘못 취하지 않도록 하는 의견을 말하고, 그 결론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말했던 것입니다.

다만 통감으로 부임해 있던 발아래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상황이) 쓰여 있지 않다고 해서 당시 한국에는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견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자는 오히려 그 반대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토가 이 의견서를 썼던 1907년 11월에 대해 말한다면, 다음해인 1908년에 걸쳐서 항일의병투쟁이 전국으로 파급되어 피크를 맞이하려고 할 즈음입니다. 일본정부는 다시 한 번 전쟁을 해야 할 정도의 군대를 새로 파견하여 항일의병 진압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토는 한국의 항일 운동을 일본의 군사력으로 가차 없이 진압했

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민족운동이 고양되게 되면 제국주의 여러 나라의 동향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점을 염려했습니다. 제국주의 국가라고는 해도 시민혁명(市民革命)을 거쳐 시민적 권리가 강한 나라에서 한국의 민족운동이 주목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한국의 의병투쟁도 영국의 맥켄지(Frederick A. Mckenzie) 등 한국 인민의 입장에 서서 보도를 한 외국인 저널리스트의 손에 의해 세계 각지로 보도되었습니다. 의병투쟁을 비롯한 한국의 민족운동이 제국주의 여러 나라의 대일(對日) 비판으로 파동 쳐 나갈 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토의 우려는 몇 겹으로 깊어지고 깊어져서 위와 같은 의견서를 쓰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의 장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걱정하면서 ‘메이지 일본(明治日本)’을 지도해 온 중심인물입니다. ‘한국 한 나라’뿐이라면 군사력으로 제압할 수 있다, 이제는 뒤로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국 병합’에 대해 ‘고우(Go)’ 사인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큰 오산(誤算)이었다는 사실은 반세기(半世紀)도 지나지 않아 전 세계에 밝혀지게 됩니다. 1945년 일본제국주의의 대패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3. 허망(虛妄)을 계속하고 있는 오늘의 일본

1945년 일본제국주의의 패전, 그리고 한국(북한)이 해방된 지 6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100년 전에 일본인이 지녔던 한국(북한)에 대한 시각이 크게 변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일본의 움직임, NHK를 예로 들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NHK는 올해(2009) 11월 29일(일요일)부터 2011년 연말에 걸쳐서 시바 요타로(司馬遼太郎)의 『언덕 위의 구름』을 원작으로 하여 13회에 이르는 드라마로 구성하여 ‘스페셜 드라마’로 방영할 예정입니다.

이 소설은 일본에서 2,000만 부나 팔렸다고 합니다. “러일전쟁은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조국방위전쟁이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한 메이지 일본(明治日本)의 성공 이야기”가 바로 소설 『언덕 위의 구름』입니다.

‘메이지 일본(明治日本)의 성공’이라고 말합니다만,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한국을 침략하여 제압함으로써 한국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바 요타로는 이 같은 일본의 대국화(大國化)와 한국의 몰락이라는 관계를 어떤 식으로 썼을까요? 시바는 한국의 몰락에 대해

- ① 남으로부터 일본, 북으로부터 러시아와 청국에 압도당하는 지리적 위치가 나빴다.
- ② 일본은 한결같이 한국의 독립을 역설했지만, 한국은 조선왕조 500년의 유교체제 아래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정체(停滯)로 인해 자력으로는 바뀌기가 어려워 외국의 침략이라는 불행한 외압(外壓)으로 비로소 무너진 무능력한 국가였다.
- ③ 더욱이 열강이 각을 세워 싸우던 제국주의 시대의 일로써 한국의 전락(轉落)은 숙명적으로 모면할 수가 없었다.

요약하자면, 이상과 같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시바의 논법에는 가공할 만한 속임수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속임수였을까요?

- ① 메이지(明治) 이후 일본이 한국에 대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즉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쓰지 않은 채 끝내고 있습니다.
- ② 동학농민군과 의병투쟁 등 한국 민중들이 일본의 침략에 대해 어떻게 맞서 싸웠는지, 국왕과 황후가 국권회복을 위해 어떻게 고심했는지, 그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일체 서술하지 않은 채 소설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메이지 일본의 영광(榮光)’을 일방적으로 칭송하는, 바

로 그러한 속임수를 써서 완성한 것이 바로 『언덕 위의 구름』이라는 소설입니다.

시바 요타로는 생전에 이 『언덕 위의 구름』이 영화나 TV드라마로 만들어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우파(右派) 정치가와 결탁한 NHK 내 (우익) 세력이 유족들로부터 방영권을 강제로 손에 넣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국병합 100년’에 맞춰 TV에서 방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북한)의 민족적 자주(自主)의 움직임에 정시(正視)하지 않았던 메이지 이후 일본의 못된 전통이 지금도 계속 살아 있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크게 되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에 중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이 같은 NHK의 움직임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노력이 교토(京都)와 고베(神戸)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필자도 금년 여름 『시바 요타로의 역사관 -그 ‘조선관(朝鮮觀)’과 ‘메이지 영광론(明治榮光論)’을 묻는다-』라는 책을 출판하여 NHK의 움직임에 대해 엄중하게 비판했습니다.

4. 동학농민군 전적을 찾아가는 여행

필자는 이번에 일본인 21명과 함께 ‘한국, 동학농민군 전적을 찾아가는 여행’에 참가하여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답사 여행은 2006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제 4회째가 됩니다. 매년 박맹수(朴孟洙) 선생을 비롯하여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큰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올해 답사는 한국의 좋은 벗들과 함께 같은 숙소에서 자고, 같은 버스로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필자가 왜 이 같은 ‘한국, 동학농민군 전적을 찾아가는 여행’을 제창했고, 왜 뜻있는 일본인들을 데리고 한국을 찾아오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 답사 여행을 통해서) 근대일본과 한

국(북한)과의 관계의 근원(根源)이 명확해 지기 때문입니다. 청일전쟁 과정에서 일본은 한국의 왕궁(경복궁)을 불법적으로 점령한다든지, 왕비(명성왕후)를 살해한다든지 등 세계에 공포할 수 없는 무법(無法)을 저지릅니다. 이런 무법에 대해 당연히 한국의 조야(朝野)를 막론하고 항일의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같은 역사적 사실(=진실)을 동학농민군 전적을 찾아감으로써 일본인 자신이 확실하게 자기 눈으로 확인하는 것, 바로 그 점에 근대 한일관계 역사의 근원이 있으며, 그 같은 근원을 확인함으로써 이제부터 새로운 차원의 한국(북한)과 일본의 관계를 수립해 가는 기초로 삼고 싶다 - 바로 이것이 한국(북한)을 끊임없이 필자의 시야 속에 넣으면서 일본군대사를 반세기에 걸쳐 연구해 온 필자의 오늘날의 소망입니다. 그 같은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후지국제여행사(富士國際旅行社)라는 여행회사에 공을 들여 설득하여 4년 전부터 이 답사 여행을 계획하여 실시해 왔습니다.

필자는 최근 전 아사히신문(朝日新聞) 정치부 기자로 서울특파원과 논설 부주간 등을 역임하고, 한일 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글을 쓴 이마즈 히로시(今津弘) 씨의 저서(『저널리스트 그 부드러움과 강함』, 스리에 네트워크, 1998년)를 읽었습니다. 이마즈 히로시 씨는 동아일보(東亞日報)의 전 기자로 사장까지 되고, 또한 정치가이기도 한 권오기(權五琦) 선생과도 친교가 있었던 신문기자입니다. 이마즈 씨의 책을 읽고 필자는 권오기 선생이 1995년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지 50주년이 되던 해에 도쿄(東京)에서 개최된 아사히신문 주최 심포지엄에서 아래와 같은 발언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본은 ‘전후(戰後) 50년’이라 해서 전 매스컴에서 논의가 분분하다. 패전한 지 반세기를 경과한 역사적 한 고비에 필요한 논의라고는 생각하지만, (한국인인) 내 입장에서 말한다면 “왜 일본의 여러분들은 1945년 패전한 날로부터만 무엇인가를 생각하려 하는가? 왜 한국의 동학당 봉기에서 시작된 청일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가 오늘날

까지 도달한 일본의 (역사적) 발자취를 돌아보려 하지 않는가. 라고 권오기 선생은

- ① 한국 역사상, ‘동학당 봉기’의 역사적인 의미를 일본인들은 알고 있는가. 1894년 ‘동학당봉기’는 명확한 사회변혁 프로그램을 가진 한국사상 획기적인 사건으로써, 그 뒤의 의병투쟁, 3.1독립운동, 그리고 현대한국의 민주주의 운동으로 이어지는 한국 민족사의 대도(大道)이다. 바로 이 점을 일본인인은 확실하게 보기 바란다.
- ② 한국의 근대(近代)를 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대중적 농민봉기를 청일전쟁 과정에서 일본이 (잔혹하게) 내리눌렀다는 사실을 일본인들은 알고 있는가?
- ③ 일본은 청일전쟁으로부터는 50년, 러일전쟁으로부터는 40년 만에 패전을 맞이한다. 타민족을 유린한 자국의 안전은 없다는 사실을 100년 전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야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권오기 선생은 패전 50년째를 맞이한 일본인들에게 이상과 같은 질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필자는 바로 이런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필자의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9년 10월 6일, 박맹수 번역)

〈자료 1〉

현대 일본의 역사인식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하여—

일시 : 2008년 8월 13일 수요일

주관 : 모심과 살림연구소

현대 일본의 역사인식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하여-

나카즈카 아키라(中塚明)
(일본, 나라여자대학 명예교수)

1. 안녕하십니까 - 나에게 어떤 이야기가 가능할까

- 권오기(權五琦, 전 동아일보 사장)씨의 일본의 역사인식 비판
- 나의 역사연구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현대일본의 역사인식’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2. 일본의 천황제(天皇制)와 역사연구

- ‘국가의 대사, 군의 기밀’ 등은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
 - 천황제 아래의 역사학
- 천황제에 굴복하지 않았던 야마베겐타로(山辺健太郎)라는 인물
 - 제 1차 사료에 근거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힌다.
 -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조선(북한)문제의 중요성을 역사적으로 생각한다.

3. 제 1차 사료에 근거한 나의 일본근대사 연구

- 일본 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무츠 무네미츠(陸奥宗光) 관계문서’와의 만남
- 후쿠시마현(福島縣)립 도서관 사토(佐藤)문고의 조사
 - 1894년 7월 23일의 경복궁점령사건 기록
 - 위조는 참모본부 부장회의의 결정
 - 「일로전사편찬강령(日露戰史編纂綱領)」

4. 역사의 위조를 자정(自淨)하지 못하는 ‘전후(戰後)의 일본’

- 일본의 패전은 ‘메이지(明治)의 유산’이 아니라 ‘메이지에 대한 배신’(수상 요시다 시게루 吉田茂의 인식)
 - ‘쇼와(昭和)의 오욕’에 대하여 ‘메이지의 영광’이라는 역사 이해
 - 전후 일본이 역사문제에 대하여 자정할 수 없었던 이유
- (1) 미국의 대일(對日) ‘반공방벽(反共防壁)’전략
 - 천황제 온존에 유화적
- (2) 전쟁책임(戰爭責任) 문제를 용케 피해 전후를 살았던 천황(天皇)과 정치가들
- (3) ‘미영(美英)과의 협조야말로 일본 번영의 길’이라는 일본인의 역사 감각
 - 이 같은 역사 이해에서 드러나지 않는 문제
- (1) ‘세계 5대 강국’이 된 일본은 한국·조선을 발판삼아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
- (2) 한국·조선 침략 사실을 은폐해 온 근대일본의 ‘역사위조’
- (3) 한국·조선의 항일민족투쟁

5. 자정하지 못하는 역사인식은 일본의 현실에 ‘경색증상’을 초래하고 있다.

- 북동아시아(동아시아; 번역자 주) 평화 구축의 움직임에 대응하지 못하는 일본정부·매스컴
- ‘북한 적대시’를 계속하려는 의도
 - 개헌, 미일군사동맹 강화를 지향한다.

6. 맺음말 : 한일의 시민들이 연대하여 북동아시아 평화 실현의 길을 걸어가자

- 21세기 현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 확산되는 일본 속에서의 ‘헌법9조 지키기’의 목소리
- 한일 양국 시민의 상호교류
 - 「한국 동학농민군 전적을 찾는 여행」의 의미

현대 일본의 역사인식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하여-

나카즈카 아키라(中塚明)
(일본, 나라여자대학 명예교수)

1. 안녕하십니까 -나에게 어떤 이야기가 가능할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맹수 선생의 권유로 서울에서 처음으로 한국 시민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개최된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적은 있습니다. 또한 재작년(2006년)에는 전라북도 익산에서 원광대학교 학생 제군들에게 강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들 앞에서 직접 이야기하게 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대단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부탁받은 강연 주제는 「현대일본의 역사인식-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하여-」라는 제목입니다. 나는 일본인 역사연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대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해 관심이 있고, 작년에는 오늘 강연 주제와 똑같은 제목의 저서도 출판했습니다.(『現代日本の歴史認識』, 高文研, 2007年 5月) 그러나, 오늘 한국의 여러분들에게 이런 주제로 이야기하게 된 것에 대해 조금은 당혹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여러분들은 오늘의 일본인들이 어떤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일부러 일본인인 나에게서 듣지 않아도 “그런 내용은 (저희들도)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라는 말이나 듣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나는 일본 『아사히신문(朝日新聞)』 전직 기자로 한국·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열심히 연구해 온 이마즈 히로시(今津 弘)씨의 저서 『저널리스트, 그 다정함과 굳셈』(1998년) 을 읽었습니다. 이

책에는 이마즈 씨가 신문기자 시절에 만났던 많은 한국의 저널리스트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전 동아일보 사장이었던 권오기(權五琦) 씨의 발언이 자주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시히신문사가 1995년에 ‘전후(戰後) 50년’ 기획의 하나로 개최한 국제심포지움 「신문과 전쟁」에 참가한 권오기 씨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전후 50년’이라고 해서 전 매스컴이 나서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논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인인 내 입장에서 말한다면, 왜 일본의 여러분들은 1945년 패전한 날로부터 무엇을 생각하려 하는가. 왜 한국 동학당 봉기가 시작된 백 년 전의 청일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 오늘에 이르게 된 일본의 발자취를 돌아보려 하지 않는가.

권오기 씨의 발언은 한국의 여러분들의 목소리라고도 생각합니다. 이 같은 목소리는 한국의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과연 어떤 이야기가 가능할까. “일본에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역사건망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는 식의 내용을 말씀드리려는 아무 것도 이야기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반세기에 걸친 내 자신의 연구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통해 「현대일본의 역사인식」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처럼 한국의 여러분들과의 모임이므로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하고 끝나지 않도록, 나의 이야기에 대한 의문이나 비판이 있으면 강연이 끝난 뒤에 꼭 들려주셔서 이 모임이 상호 대화(對話)하는 자리가 된다면 다행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 일본의 천황제와 역사연구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1945년 패전까지 천황(天皇)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주권자였습니다. 국민은 ‘국민(國民)’으로 불리지 못하고 천황의 종자(從子)를 의미하는 ‘신민(臣民)’으로 불렸습니다. 천황은 광범위한 권력을 갖고 있었으며, 외국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강화(講和)를 맺는 것도 천황의 권력행사의 하나였습니다. 그 종자들인 ‘신민’은 ‘국가의 대사, 군의 기밀’ 등은 결코 입에 올려서는 안 되었으며, 역사학자도 예외가 아닌 존재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천황제 지배 아래에 있던 일본에서 천황의 지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회주의자의 일단입니다. 내가 패전 직후에 역사공부를 전문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을 때, 특히 1960년대부터 70년대에 걸쳐 역사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친하게 지냈던 야마베 겐타로(山邊健太郎, 1905-1977) 씨도 그 중 한 사람입니다. 1905년생인 그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학력’은 없었지만 두뇌 명석하고, 그 위에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노동운동에 참가하여 일본으로 건너온 조선인 노동자와도 일찍부터 교제를 했습니다. 6천 명 이상의 조선인이 학살당했던 1923년 관동대지진(關東大地震) 때부터입니다.

당시 일본의 사회주의자가 모두 조선 문제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회주의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자 가운데 재일(在日) 조선인 노동자와 교류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극히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태평양전쟁 기간 중 야마베(山邊) 씨는 ‘예방구금소(豫防拘禁所)’에 수감되어 있었지만, 최후까지 천황제에 대한 굴복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1945년 8월 일본이 패전한 뒤에야 가까스로 출옥할 수

있었습니다. 비전향(非轉向) 사회주의자였던 것입니다. 비전향 사회주의자라고 하면 어딘가 딱딱한 인물을 상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천진난만, 천의무봉(天衣無縫)의 사람, 일체의 권위와 명예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유인이었습니다. ‘예방구금소’에서는 재일조선인 노동자운동의 지도자였던 김천해(金天海)와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야마베 씨는 천황 및 국가구조로써의 천황제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천황제 아래의 일본에서 출판된 모든 책과 사료집 등에는 그 어떤 고명(高名)한 인물이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거짓과 왜곡이 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제 1차 사료를 찾아 그것에 근거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또 “천황제의 전제지배 아래에서 2차대전 패전까지의 일본 사회과학계는 조선 문제됐거하여 역조선침략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극히 미약하다히 미약하 의한 조선침략 문제됐거식민지배 문제를 밝히지 않으면 미약필약주의 발달사도 완전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했거패전 뒤에 가장 일찍얹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런 연구를 실천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일한병합소사(日韓併合小史)』(1966년), 「일본통치하의 조선(日本統治下の朝鮮)」(1971년, 모두 이와나미 신서)으로 공간(公刊)되었습니다.

야마베 씨의 연구는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침략사」에 관한 연구로, 한국·북한을 내재적(內在的)으로 본 연구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재일한국·조선인의 ‘조선사 연구자’ 측으로부터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일본에서 젊은 연구자들에게 조선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스스로 제 1차 사료를 널리 찾아내어 일본의 조선침략사 연구에 어느 정도의 계통적(系統的; 체계적) 전망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사학사상(史學史上) 그는 개척자 역할을 수행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제 1차 사료에 근거한 나의 일본근대사 연구

나는 1960년대에 야마베 씨와 함께 일본 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憲政資料室)에서 공개되고 있던 ‘무츠 무네미츠(陸奥宗光) 관계문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무츠 무네미츠는 청일전쟁 당시 일본 외무대신입니다. 그가 남긴 자료를 패전 후에 그의 손자인 무츠 요우노스케(陸奥陽之助)씨가 헌정자료실에 양도했습니다. 패전 후 헌정자료실에서는 오쿠보 토시아키(大久保利謙, 1900~95, 메이지유신의 지도자인 오쿠보 토시미치 大久保利通의 손자로 패전 후 대학의 역사학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씨들의 방침으로 일본근대의 정치가, 군인 등의 소장문서를 정력적으로 수집하여 공개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무츠 무네미츠 관계문서를 중심으로 한 1960년대 나의 역사 연구는 『청일전쟁 연구(日清戰爭の研究)』(青木書店, 1968년)로 공간했습니다. ‘무츠 무네미츠 관계문서’ 연구는 내가 제 1차 사료를 풀(pool)로 활용한 최초의 성과였습니다. 당시 공간되어 있던 『일본외교문서(日本外交文書)』 등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기록과 정치가의 서간 등, 제 1차 사료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며, 더욱이 그 조사는 대단히 재미있는 작업이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 같은 제 1차 사료의 발굴은 그 뒤로도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청일전쟁으로부터 꼭 1백 년째에 해당하는 1994년, 일본 동북지방 후쿠시마현(福島縣)립 도서관의 사토(佐藤)문고를 조사했습니다. 거기에는 일본육군 참모본부 - 구 일본 육군의 전쟁지도 최고기관 - 가 쓴 「일청전사초안(日清戰史草案)」이 소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역사 연구는 몇 개의 커다란 전환점이 있습니다만, 이 사토문고 조사도 커다란 전환점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조사 성과는 『역사의 위조를 밝힌다(歴史の偽造をただす)』(高文研, 1997년)로 출판했습니다만, 이 책이 출판될 무렵 일본 홋카이도대학에 유학중이던 박맹수 선생의 눈에 띄어 박 선생의 손으로

2002년에 서울의 푸른역사 출판사로부터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하라』라는 제목으로 전문(全文)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미 읽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연구는 청일전쟁에서 일본군 최초의 계획적인 무력행사(武力行使)가 (청나라와의 해전인 풍도해전이 아니라; 번역자 주) 서울의 왕궁, 즉 경복궁 점령이었다는 사실을 일본 참모본부가 쓴 기록을 통해 밝혀낸 것입니다. 일본 참모본부가 1904년에 공간한 『메이지 이십칠팔년일청전사(明治二十七八年日清戰史)』에는, 일본군이 1894년 7월 23일(음력 6월 21일 ; 번역자 주) 새벽, “한국 병사의 발포를 받고 응전한 우발적이며 극히 소규모적인 충돌사건”으로, 왕궁으로 들어가 “국왕을 보호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사토문고 소장의 「일청전사초안」을 통해서 밝히게 되었습니다. 초안에는 재조선(在朝鮮) 일본공사관(지금으로 말하면 주한일본대사관)과, 이미 출병해서 용산(龍山)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혼성여단과의 사이에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준비·계획되었으며, “국왕을 포로로 하기” 위하여 왕궁을 점령하려는 계획이 상세하게 쓰여 있고, 일본군이 경복궁의 서쪽 문인 영추문(迎秋門)을 파괴하고 왕궁으로 돌입하는 상황도 대단히 생생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일본군 최고기관인 참모본부가 쓴 기록에 의해, 참모본부가 공간한 전사(戰史)의 기술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더욱이 2002년에는 이 같은 위조가 참모본부 부장회의(部長會議) 결정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도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왕궁점령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 청일전쟁을 벌인다고 천황이 발(發)한 ‘선전조칙(宣戰詔勅)’과 모순이 되기 때문에 수정해서 다시 쓰라”는 참모본부 부장회의의 결정이 방위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는 구 일본 육군의 기록을 통해 밝혀진 것입니다. 러일전쟁 이후에는 일본 군부(軍部)가 전사를 체계적, 조직적으로 위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일청전사초안」과 마찬가지로 후쿠시마현립 도서

관 사토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일로전사편찬강령(日露戰史編纂綱領)」이라는 문서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4. 역사의 위조를 자정(自淨)하지 못하는 ‘전후의 일본’

이와 같이, 국가 권력에 의한 역사위조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권력자가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행해 온 것으로 일본만이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혁명으로 권력자가 타도된다든지, 또는 전쟁으로 인한 패전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권력의 교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와 국민들의 혁신적 역량에 의해 이 같은 위조는 바로 잡혀 역사적 사실에 가까운 역사인식의 심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세계 각국에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제 2차 세계대전에서 대 패배를 한 일본은 메이지(明治) 이후의 일본이 자행해 온 역사 위조를 청산하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역사인식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패전 후 일본에서는 그 같은 역사인식의 근본적 혁신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패전 후 오랜 기간 일본 수상을 맡았던 외교관 출신의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1878-1967)는 일본의 패전은 ‘메이지의 유산’이 아니라, ‘메이지에 대한 배신’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컨대, 청일전쟁·러일전쟁에 의해 구축된 근대일본의 대국화(大國化) 성과와, 만주사변(1931년에 시작되는 중국 동북부에 대한 침략 전쟁) 이후 패전에 이르는 역사는 상호 관련이 없다. 만주사변 이후의 일본은 청일전쟁·러일전쟁에 의해 구축된 성과를 배반했기 때문에 패전에 빠졌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식의 일본근대사 이해는 오늘의 일본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가 시바 요타로(司馬遼太郎) 등으로 대표되는 ‘쇼와의 굴욕’에 대해 ‘메이지의 영광’이라는 식의 역사 이해가 널리 세간을 물들이고 있으며, 상당히 진보적인 사람들에게서조차 지지를 얻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처럼, 패전 후 일본이 메이지 이후의 근대일본의 역사문제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자정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다음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1) 미국이 소련에 대해, 또 중국혁명이 성공하고 나서는 그 중국에 대해, 일본을 ‘반공 방벽’으로 삼는 전략에서 일본을 점령했던 사실. 그러기 위해 천황제의 온존(溫存)에 대해 극히 유화적이었던 것.
- (2) 쇼와 천황을 비롯하여 일본의 구정치가들은 이러한 미국의 정책에 안심하고, 전후 재출발했다는 점, 그들은 천황의 이름으로 행해진 과거의 침략전쟁에 대해, 만주사변 이후의 전쟁에 대해 육군의 일부 지도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천황을 포함하여 책임추궁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일 없이 패전 후의 나날을 용케 피해 나갔던 것입니다.
- (3) 더욱이 미영(美英)과의 협조야말로 일본이 성공하는 길이라는, 메이지 시대부터 배양해 온 일본국민 자신의 역사 이해와 감각이 이러한 상황 아래서 재검토(再檢討)되는 일은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 이유가 상승 작용을 하여 권오기 씨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과거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의 태도”로 패전 이후를 살아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역사) 이해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태도 일본인에게 전혀 보이지 않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들어 있습니다.

- (1) 청일·러일전쟁을 거쳐 ‘세계 5대강국’의 하나가 된 일본이 사실은 조선을 희생양으로 삼아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 (2) 또 조선침략의 역사를 은폐해 온 근대일본의 ‘역사 위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 (3)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도요도미 히데요시의 재침(再侵)’을 연상

시키는 근대일본의 조선침략에 맞서 봉기했던 한국·북한의 항일민족 투쟁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이래 한국·북한의 변혁적, 민족적 대중투쟁의 모습과 그 역사적 의미가 전혀 이해되지 못해 왔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오기 씨가 “왜 일본의 여러분은 1945년 패전한 날로부터 무엇을 생각하려 하는가. 왜 한국 동학당 봉기가 시작된 1백 년 전의 청일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 오늘에 이르게 된 일본의 발자취를 돌아보려 하지 않는가”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같은 일본인들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정확하게 지적하신 발언이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된 것은 한국·북한 측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일본의 문제, 일본인 자신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5. 자정하지 못하는 역사인식은 일본의 현실에 ‘경색증상’을 초래하고 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북동아시아에서는 1950년대 한국전쟁 이래의 불안정 요인을 제거하여 이 지역에 진정으로 평화적인 국제관계를 실현하려는 획기적인 외교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26일, 부시 미국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6개국 협의의 합의에 근거하여 ‘핵계획 신고서’를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한 것을 받아들여, 북한을 ‘테러지원국가’ 지정에서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의회에 통고했습니다.(해제 기한이 8월 11일이었지만 미국은 끝내 ‘테러지원국가’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일본 측의 집요한 방해공작도 그런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 8월 13일 강연 자리에서 나카츠카 교수님이 구두로 지적한 내용; 번역자 주) 이와 함께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대적(對敵) 통상법’ 적용도 종료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이 한국전쟁 이래 실로 55년에 걸쳐 북한에 가했던 경제제재를 정지한다는 것입니다. 실로 역사적인 발표였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냉전구조가 유일하게 지금까지 계속된 한반도의 역사, 나아가서는 북동아시아 전역에 평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 정말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매스컴은 이 역사적인 빅뉴스에 대해 차가운 반응밖에 보이지 않았습시다. “일본인 납치문제가 되로 밀릴 염려가 있는데 미국이 어찌 그럴 수 있나? 미국이 일본을 배반한 것이 아닌가?” 라는 불만을 늘어놓는 보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본은 이 역사적 대전환의 의미를 받아 들여 일본 독자적인 외교적 제안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일본의 샐러리맨들이 흔히 읽고 있는 『니혼게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은 “미 정부는 북한의 테러국가 해제를 재고하라”는 사실을 게재하여 정면으로 미국의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이 사실은 미국의 결정은 “북한의 의도대로의 전개”라고 하면서, “이번 결정은 북한에 대한 미일간의 위협 감각의 차이를 드러내 보였다. 위협 감각의 공유야말로 동맹(同盟)의 전제인데, 그것이 없다면 미일안보조약은 종이조각에 가깝다”며 부시정권을 맹비난했습니다.

메이지(明治) 이래 일본은, 조선은 대단히 뒤떨어진 정체된 사회이기 때문에 독립해서 근대적 국가를 만들 만한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일본이 조선을 ‘보호(保護)’하지 않으면 제 3국 세력 아래 놓이고 말아 일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고 계속 말해 왔습시다. 이런 논리는 조선의 민족적인 자주성·자립성을 단 한 구석도 인정하지 않는 논리로써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데 일조해 왔습시다. 일본은 바로 이런 견지(見地)에서 청일전쟁·러일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민족독립운동을 중국과 소련의 사주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침략의 손을 중국의 동북(만주)으로까지 뻗쳤습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본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쳐 끊임 없이 동아시아에서 전쟁의 씨앗을 뿌려왔던 것입니다.

이런 불행한 역사를 성실하게 바로 잡는 일 없이 오늘로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현실이 부시대통령의 이번 발표의 의미를 성실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제 2차 세계대전 중의 조선인 강제연행문제, 여자 정신대문제(종군위안부문제)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은 채, ‘일본인 납치문제’ 만을 선전하는 것은 아시아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미국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지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와 매스컴은 모두 ‘북한 위협론’ 을 내세움으로써 바로 일본의 군사력 강화와 미국과의 공동 군사행동(집단적 자위권 문제) 기도를 실현하는 근거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2007년 4월, 당시 아베(安倍) 내각은 수상의 자문기관으로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를 설치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아베 수상이 “자문의 검토과제로 제시한 문제 네 가지” 가 있습니다만, 그 첫째는 “미국을 향해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자위대 미사일방위(MD) 시스템이 격추하는 것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되므로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미국에 대한 미사일 공격’ 이라는 있을 수 없는 사태를 흡사 목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인 것처럼 자문함으로써 미국과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일본국 헌법 제 9조의 폐기로 연결시키려는 사전준비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 적대시정책은 북한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일본 자신의 청산하지 못한 역사인식, “자업자득” 의 결과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 되돌아봅시다. 2006년 10월 9일에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세계의 겉 무대에서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했습니다만, 그 무대 뒤에서는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각국 수뇌가 기민, 그리고 적확하게 대응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정부와 매스컴이 일체가 되어 제재로 내달린 나라는 일본뿐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와이드 쇼(wide show)로 ‘북한 핵실험’ 을 되풀이해

서 방영했습니다. 게다가 그 내용도 “언제 미국이 군사제재를 단행할 것인가, 레드 라인(red line)은 언제일까, 선박검사가 레드라인이 될 것이다, 언제 전쟁의 화문(火門)이 깨질 것인가” 라는 내용만을 논의하여 일본인들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마지않았던 것입니다.

6. 맺음말 : 한일 시민들이 연대하여 북동아시아 평화 실현의 길을 걸어가자

일본에는 “지금 일본은 만주사변 전야의 시대와 닮아 있다” 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수년래 일본의 우경화(右傾化)를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들려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목소리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만주사변(1931년 9월)이 일어나기 전, 유력 신문사 대표들과 육군과 외무성 고관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주문제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육군 군무국장으로 나중에 조선총독이 된 코이소 쿠니아키(小石幾國昭, 1880~1950)는 “일본인은 전쟁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전에는 여러 가지 핑계를 늘어놓아도 (전쟁의) 화문(火門)을 열기만 하면 따라 온다” 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시작되자 코이소의 의도대로 일본은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21세기 현재, “일본이 자기 마음대로 전쟁의 화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북동아시아를 비롯하여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일본 우파(右派) 정치가와 배외주의적(排外主義的) 저널리스트들이 요란하게 떠들어대더라도 그들의 원망(願望)이 받아들여질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일본인 사이에서도 ‘일본국 헌법 9조’ (①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회구하며, 국권 발동에 의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것을 방기(放棄)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기타 전력은 이것을 보지(保持)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를 지키는 운동이 커다란

확산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4년 6월 10일, 노벨상 수상작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씨 등 9명이 호소한 ‘9조의 모임 어필’을 지지하여, 그들과 함께 행동하려는 다양한 ‘9조 모임’이 일본 전국에서 탄생하여 그 수는 지금 7천을 넘고 있습니다. 신문의 여론조사에서도 ‘9조를 지켜라’는 목소리가 60%를 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정정(政情), 국민들의 역사인식에는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위험한 측면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물론 야당 속에도 일본헌법을 고쳐당 속적으로도 해외파병을 언제라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획책이 지금도 있으며, 금후로도 계속되겠지요. 그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과 동시에, 우리들은 새로운 평화와 연대를 지향하는 국제적인, 그 중에서도 특히 한일 양국 시민들에 의한 시민 상호교류를 활성화시켜, 과거의 역사로부터 눈을 돌리지 않으면서,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운동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번에 ‘한국 동학농민군의 전적을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투어를 기획하여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언제나 박 선생에게 큰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이 투어는 2002년이 처음이었습니다. 3년 전(2006)부터는 매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투어를 통해 일본인들은 전주(全州)를 비롯한 각지의 동학농민군 전적을 찾아가, 기념비 앞에 서서 박 선생의 설명을 듣고, (일본인인) 자기 자신의 역사 이해에 새 바람을 불어 넣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일 시민교류에는 여러 분야, 여러 가지 기획이 있는 것이 좋고, 오히려 그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나는 동학농민군 전적을 방문함으로써 근대일본의 조선침략, 거기에 맞서 독립을 위해 싸웠던 조선의 민족적인 역사를 배우는 일은 일본인 사이에 결락(缺落)된 역사인식을 풍부하게 하는 데 대단히 적절한 교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지기를 기대하면서, 한국의 여러분들의 협력을 바라면서 오늘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6 —

〈자료 2〉

나카즈카 아키라(中塚 明)教授 招請 特別講演會

一次史料를 통해서 본 近代 韓日關係의 再構成
-1875년의 雲揚号事件으로부터 1894년 朝鮮王宮(景福宮) 占領事件까지-

일시 : 2006년 11월 22일 수요일

주최 : 원광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一次史料를 통해서 본 近代 韓日關係의 再構成 -1875년의 雲揚號事件으로부터 1894년 朝鮮王宮(景福宮) 占領事件까지-

나카즈카 아키라(中塚 明)
(일본, 나라여자대학 명예교수)

1. 머리말

* 나는 1960년대 초부터 淸日戰爭(일본에서는 日淸戰爭)을 중심으로 한 근대 한일 관계를 연구해 왔다.(연구업적은 약력 참조)

* 약 반 세기 동안의 나의 연구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역사연구에 참고가 되면 다행이겠다.

2. 나의 역사연구(크게 세 시기로 구분)= 1차 사료 탐색 후

(1) 1962년: 『이와나미강좌(岩波講座) 日本歷史』에 「淸日戰爭」 집필
-->日本 國會圖書館 憲政資料室에서 「무츠 무네미츠(陸奥宗光)關係文 書」 조사

1차 사료로부터 역사를 서술하는 최초의 기회

-->일본에서 ‘朝鮮 獨立을 위한 戰爭’이라고 일컬어지는 청일전쟁
정말로 일본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가를 訓令이나 條約 草案 등을 통해서 고찰함

(2) 1980년대: 『건건록(蹇蹇錄)』의 校訂에서 『蹇蹇錄의 世界』 刊行으로
『건건록』 = 일본 外相 무츠 무네미츠가 쓴 청일전쟁 당시의 外交秘錄

* “事實을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名著”라는 종래의 평가는 정말일까?

--> 『건건여록초고철(蹇蹇餘祿草稿綴)』, 제 1차 간행본, 제 2차 간행본 등을 철저히 비교 고증함

--> 『건건록』 출판과 관련하여 무츠의 未發見 편지를 찾아낸다.
⇨ 『건건록의 세계』 (1992) 간행 ⇨ ‘무츠 외교’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사진 1.

* 日記나 手記라 하더라도 眞實을 쓰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단순히 僞造를 간파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작업-->철저한 史料批判을 실천한 연구

(3) 1994년 이후: 후쿠시마현(福島縣) 縣立圖書館 ‘사토문고(佐藤文庫)’의 「日清戰史草案」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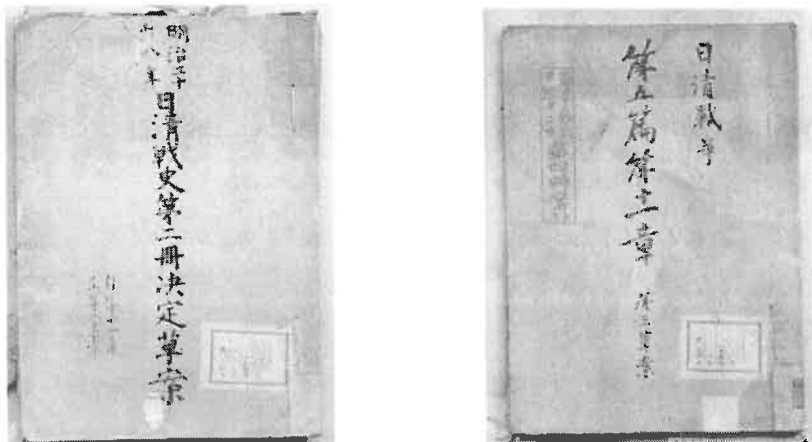


사진 2.

-->일본육군의 中樞=參謀本部가 쓴「日清戦史草案」을 통해
바로 그 참모본부가 公刊했던 戦史의 거짓을 밝혀내는 연구
-->「일로전사편찬강령(日露戦史編纂綱領)」과도 만나다
⇒ 근대일본의 戦史編纂이 天皇制權力에 의해 조직적으로 改竄
(개찬 ; 글자나 글귀를 고쳐 사실을 위조하는 행위)되었다고 확신함
(『歴史の偽造をただす』、高文研、1997年。-->朴孟洙 교수 번역
에 의해 한국어판『1894년, 경복궁을 점령하라』가 2002년에 푸른
역사에 서 나왔다)



사진 3.

3. 제 1차 사료의 소개---최근, 일본 역사학계의 성과

(1) 참모본부에 의한 「日清戦史」 개찬의 결정적 사료

- * 일본의 육군참모본부는 『明治二十七八年日清戦史』(全8卷。第1卷 1904년에 刊行)를 公刊(이하, 「公刊戦史」라 한다)
- * 그러나 「공간전사」는 개찬됨.(앞의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하라』를 참조)
- * 언제, 어떤 이유로 개찬되었을까. 拙著에서는 未解明

⇒이가라시 켄이치로(五十嵐憲一郎)에 의한 사료 소개

「일청전사 제일제이 편 진달에 관해 부장회의에서 한 말씀하다
(日清 戦争第一第二編進達ニ關シ部長會議ニ一言ス)」(明治三十六
年一月起 參 謀本部 部長會議錄 七月一日)(軍事史學會編集『軍事
史學』通卷 148號, 2002年 3月, 錦正社)

原文은 防衛研究所 戰史部 圖書館 所藏 『秘 明治三十五年五月起
部長 會議錄 第壹號 佐官副官管』<<請求記號「參謀本部 雜 M35
~19 135」>>



사진 4.

“(前略) 하나하나 例證을 제시하거나, 또는 漢城(=서울; 읍건이 주)
을 포위하여 韓廷(=조선왕조; 읍건이 주)을 威嚇(위협; 위력으로 으
르고 협박함)한 顛末(전말; 일의 시작에서 끝까지의 모양)을 상세하
게 서술하는 것이 불후의 통쾌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中
略) 특히 宣戰詔勅(일본정부의 선전조칙은 1894년 8월 1일에 공포
되었다; 읍건이 주)과 모순이 될 염려 있음”

위의 내용은 요컨대, 일본군에 의한 조선왕궁 점령 등의 사실을
상세하게 기술하게 되면, “內閣과 軍部를 통일해서 지휘하는” 天皇

의 大權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되어 선전조치와 모순이 될 염려가 생길 수 있으니, 그 같은 내용은 상세하게 쓰지 말고 다시 고쳐서 편찬하라는 지시이다. 단지 문장이나 말이 쓸데없이 번잡하고 길기 때문에 간략화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공간전사」 간행을 향한 개찬은 ‘秘密事項을 省略’하여 ‘宣戰詔勅의 主旨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더욱 더 조직적, 체계적인 戰史 改竄-->참모본부의 『日露戰史編纂綱領』(앞의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하라』 참조)



사진 5.

(2) 1875년 雲揚號事件에 관한 제 1차 사료가 소개되다

-->스즈키 준(鈴木 淳)에 의한 사료소개

「雲揚艦長 이노우에 요시카(井上良馨)의 메이지 8년(=1875년; 옮긴이 주) 9월29일부 江華島事件報告書」(『史學雜誌』 2002년 12월호) 原文書는 「明八 孟春 雲揚 朝鮮回航記事」, 방위연구소 전사부 도서관 소장, <<請求記號 「④艦艇 139」>>



사진 6

① 운양호사건에 대한 일본의 상식

“端艇(단정; 조그만 배)을 타고 먹을 물을 찾고 있을 때 朝鮮 측으로부터 銃擊을 받은 것이 계기”--> 이 기회에 조선과 국교관계 수립-->舊來의 事大交隣의 국제관계를 타파-->다음 해인 1876년 2월에 朝日修好條規(江華島條約)를 체결함으로써 萬國公法(=근대 국제법; 옴킨이 주)적인 국제관계를 수립(『國史大辭典』)

② 스즈키 준의 사료소개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사실

(i) 메이지 8년(1875) 9월 29일부 보고서(제 1보고서)의 全文 소개

이미 公表되어 있던 메이지 8년 10월 8일부 보고서(제 2보고서=일본정부의 공식보고서)와 어떻게 다른가-->3일 간에 걸친 戰鬪詳報이다

(ii) 왜 제 2보고서(공식보고서)가 만들어졌던 것일까. 바뀌어진 내용

- * 3일간에 걸친 사건을 하루 동안 일어난 사건으로 바꿔 썼다
- * “먹을 물을 찾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iii) 왜 바뀌 썼을까

첫째, 일본정부 내에서 다른 나라의 領海 안의 河川으로 들어가 “3일간이나 있었다고 하게 되면 다른 나라의 영해에 들어가 戰爭을 한 것이 되며, (이런 행위는) 國際公法上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인 것처럼 바뀌 쓴 것이다

둘째, 이런 논쟁에 대해 운양함장 이노우에(井上)는 領海 內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國際公法에는 연료나 먹을 물이 모자랄 경우에는 임시로 어떤 곳의 港灣에 들어가더라도 지장이 없다고 하는 내용이 있으며, 자신도 지금은 먹을 물을 찾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따로 잘못된 점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宮內廳 書陵部 所藏 「臨時帝室編修局本」中, 공개된 談話記錄을 편집한 호리구치 오사무(堀口 修) 감수편집 『臨時帝室編修局史料「明治天皇紀」談話記錄集成』(유마니書房, 2003년) 所收「井上元帥談話要領」(1924년 5월)

(iv) 더욱 더 주목해야 할 것은 雲揚號事件 직전인 동년(1875) 7월에 이노우에 요시카가 작성한 「艦隊指揮御中」이라는 문서가 소개되었다는 사실이다.

-->운양호사건을 일으키기 전인 1875년 6월 12일부터 7월 1일까지 이노우에 요시카가 지휘하는 운양호는 釜山을 출항하여 咸鏡南道 永興灣, 慶尙北道 迎日灣, 蔚山 등을 정찰하고 7월 1일에 나가사키(長崎)로 귀항했다. 바로 그 직후에 「艦隊指揮御中」이라는 제목으로 정찰 결과를 자세하게 쓴, 운양함장 이노우에 요시카(井上良馨)의 印이 찍힌 문서.

⊙ 이 문서의 결론 부분에서 이노우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意譯하여 소개)

“조선은 일본에게 있어 중요한 땅이다. 만일 조선이 다른 나라에게 領有되면 일본은 발전할 수 없다. 조선을 일본이 領有하면 일본은 나라의 基礎를 단단히 하여 세계로 雄飛하는 第一步가 될 것이다. 일본의 강약은 일본이 조선을 정복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조선은 지금 일본의 국교교섭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을 공격할 이유는 충분하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조선 국내에서는 一揆(농민소요, 民亂을 말함; 脡간이 주)가 일어나는 등 여러 가지 內患이 있다. 이것은 하늘이 우리 일본에게 내려준 기회이다. 만일 이 기회를 놓쳐 조선을 치지 않는다면 장래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일본인들은 조선이 강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조선은; 脡간이 주) 결코 강하지 않다. 東海岸에는 兵備다운 것이 없으며, 西海岸에는 조금 있긴 하지만 그것도 舊式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 (조선의) 兵備가 弱小하다는 사실은 이 보고서에서 말한 그대로이다. (조선의) 국내 사정은 정치가 가혹해서 인민들이 대단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지배자에 대한 원한이 쌓이고 있다. (그러므로) 무엇 하나 두려워할 것이 없다. 게다가 일본과 조선은 거리도 가깝다. 따라서 運送便도 좋다. 작년 臺灣事件(일본의 臺灣出兵)보다 도리어 더 손쉬울 것이며 비용도 더 적게 들여서 끝낼 수 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를 깊이 통찰하여 반드시 서둘러 출병이 이루어 지기를 희망한다. 밤낮으로 오직 출병 지령만을 기다릴 따름이다.

위의 문서 내용에 의하면, 운양함장 이노우에 요시카(井上良馨)가 운양호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日本 海軍 수뇌부 앞으로 보낸 문서에서 朝鮮과의 전쟁을 줄곧 바라고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물론 나도 운양호사건 당시의 일본정부와 해군 수뇌부가 이노우에(井上)의 의견에 전면적으로 同調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당시 일본은 그럴만한 군사력도 아직 지니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이노우에의 建言(=건의하는 말)을 諒解한 가운데 雲揚艦에게 조선 서해안의 측량 조사를 명령했다는 점은 너무나 명백하다.

운양함을 파견했던 일본정부 및 해군의 행동이 35년 뒤(1910년; 옴긴이 주)에 일본에 의한 ‘韓國併合’으로 일직선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역사를 단순화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1875년 운양호 사건이 ‘朝鮮領有’라는 近代日本の 戰略的 目標上 중요한 第一歩가 되었다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나는 그동안 公刊된 戰史類 안에 진실이 쓰여지지 않기 시작한 것은 근대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對外侵略戰爭이었던 淸日戰爭 때부터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와 같은 내 생각은 불충분한 것이었다. 근대일본의 역사위조는 청일전쟁 때부터가 아니라, 일본의 조선에 대한 무력행사의 첫걸음인 1875년의 운양호사건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스즈키 준이 소개한 일련의 문서는 바로 그 같은 내용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3. 맺음말:權力은 歷史를 虛構로 바꾼다--역사연구자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1) 모든 권력은 과거를 자기정당화하기 위하여 이용하며, 역사를 허구로 바꾼다

--> 역사연구자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 자신의 意志로 또는 強制당하는 ‘史官’ 역할을 하면서 權力의 正當化에 奉仕할 것인가

⇒ 眞實을 復元하여 권력의 歷史的 正當性을 물으며, 權力을 초월한 洞察을 미래를 향해 제시하고, 권력으로부터 自立한 歷史感覺과 批判精神이 社會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데 힘을 기울일 것인가

(타니우치 유즈루=溪内 謙 「소비에트사의 새로운 세대」, 나우카, 『窓』 100호, 1997년 참조)

(2) 야마베 켄타로(山辺健太郎, 1905-1977)의 遺訓 두 가지

* 초등학교 졸업, 사회운동가(사회주의자; 옴긴이 주), 天皇制國家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非轉向으로 일관함. 1945년 10월 10일 출옥.

* 1920년대부터 在日朝鮮人 勞働者들과 교류

-->제 2차 세계대전 패전 전의 일본근대사 연구에서는 朝鮮問題가 누락됨, 이런 식으로는 일본 資本主義發達史도 서술할 수 없다

-->天皇制權力 아래에서 쓰여지거나 편찬된 서적들은 거짓이 많다. 그러므로 반드시 제 1차 사료를 찾아 그것을 근거로 하여 역사를 서술할 것.

① 日本의 歷史研究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천황제권력 아래에서 개찬된 사실의 복원= 제 1차 사료 발굴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일 ⇨사실 확인이야말로 급선무

② 民衆의 입장에서 역사를 재검토하는 일

i) 日本人 兵士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일본사회 전체와 한국과 북한을 비롯한 동아시아세계 속에서 해명하는 일.

ii) 한국사연구에 대해 감히 언급한다면,

‘民族主義’에 떨어지지 않고 民衆의 人權을 기초로 近代史를 재검토하는 일

*구체적인 예 한 가지= 한국의 동학농민혁명 연구에서 배운 것

-->‘東學黨의 亂民’으로부터 ‘東學農民革命軍 名譽回復 特別法’(2004년)이 성립하기까지 歷史研究 방법이라는 관점에서 정리

(⇨ 내가 가르침을 받은 것---1980년 ‘光州事件’이 역사연구에 어떤 방법상의 변화를 가져왔을까. 연구자 및 학생들은 그 같은 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어떻게 참여하여 왔을까)

③ 마지막으로 한일 두 나라의 연구자와 시민들의 相互交流가 한층 더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

(번역: 박맹수)

〈자료 3〉

나카즈카 아키라(中塚 明) 교수
주요 약력과 저술 및 한일 시민교류 활동

〈자료 4〉

歴史の偽造なただす
日・韓の市民が一緒に行く。

나카즈카 아키라(中塚 明) 교수 주요 약력과 저술 및 한일 시민교류 활동

<약력>

- 1929년 일본 오사카 출생
- 1953년 교토대학(京都大學) 문학부 사학과 졸업
- 1960년대부터 근대일본의 역사에서 '조선문제(朝鮮問題)'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자각하여 청일전쟁(淸日戰爭)과 동학농민혁명을 비롯한 근대 한일관계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함
- 1963년 나라여자대학 강사
- 1965년 동 대학 조교수
- 1972년 동 대학 교수
- 1993년 3월 동 대학 정년퇴직
- 1991년 7월-2000년 7월 일본학술회의 회원
- 나라현 역사교육자협의회 회장 역임
- 현재 나라여자대학 명예교수

<주요 저술>

- 『日清戦争の研究』 (青木書店、1968年)
- 『近代日本と朝鮮』 (三省堂, 初版 1969年、第3版 1994年)
- 『新訂 蹇蹇録』 (岩波書店, 1983년、ワイド版2刷 2007年)
==> 『건건록』 (김승일 역, 범우사, 1993년)
- 『蹇蹇録の世界』 (みすず書房、1992年)
- 『近代日本の朝鮮認識』 (研文出版、1993年)
==> 『근대일본의 조선인식』 (성해준 역, 청어람 미디어, 2005년)
- 『歴史の偽造をただす』 (高文研、1997年)
==>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하라』 (박맹수 역, 푸른 역사, 2002년)

『歴史家の仕事』 (高文研、2000年)

『これだけは知っておきたい 日本と韓国朝鮮の歴史』 (高文研、2002年)

==> 『일본인이 본 역사 속의 한국』 (이규수 역, 소화, 2003년)

『現代日本の歴史認識』 (高文研、2007年)

『司馬遼太郎の歴史観』 (高文研、2009年)

<나카츠카 교수님과의 한일 시민교류 활동>

2001년 나카츠카 교수님 동학농민혁명 107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참가(한국 전주)

2002년 나카츠카 교수님 일행 제 1차 동학전적지 여행(한국 강화도, 서울, 전주, 진도)

2003년 사단법인 한살림 모심과 살림연구소 주관 제 1차 일본 시민단체 연수 기행(일본 나라, 고베, 홋카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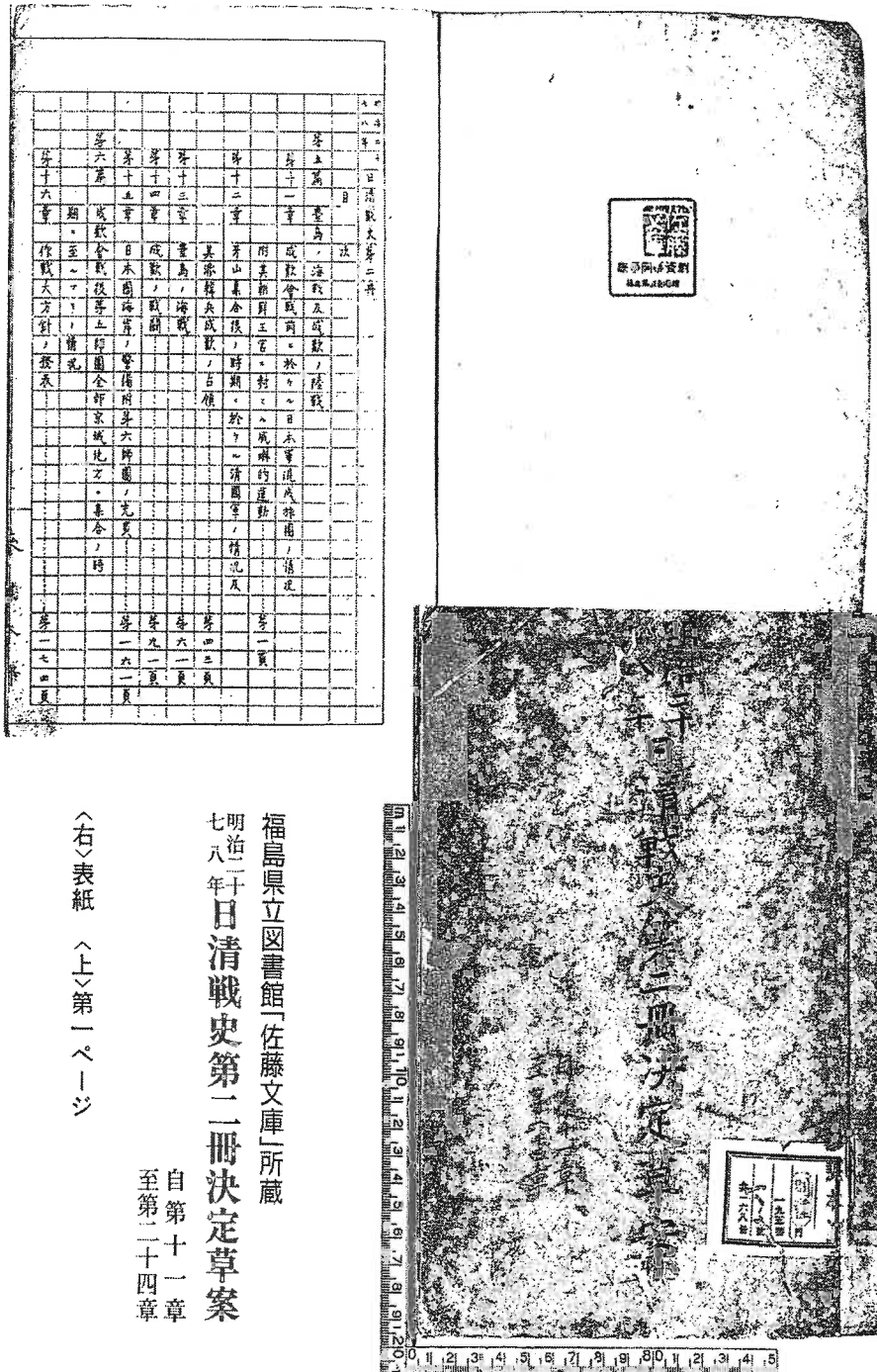
2004년 사단법인 한살림 모심과 살림연구소 주관 일본 시민단체 연수 기행(일본 홋카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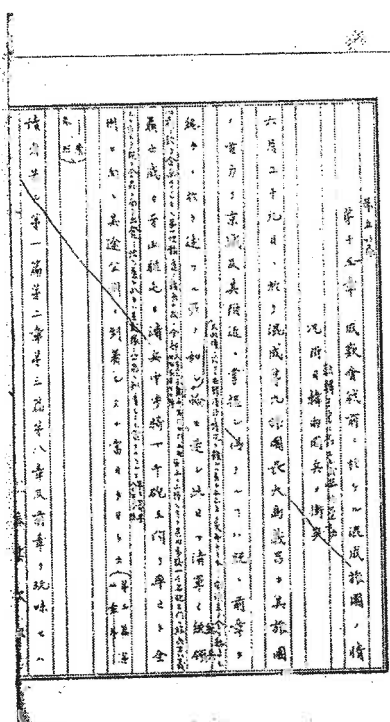
2006년 나카츠카 교수님 일행 제 2차 동학전적지 기행(한국 강화도, 서울, 전주, 진도)

2007년 나카츠카 교수님 일행 제 3차 동학전적지 기행(한국 서울, 전주, 진도, 부안, 대둔산, 공주)

2008년 나카츠카 교수님 일행 제 4차 동학전적지 기행(한국 서울, 익산, 전주, 대둔산, 공주)

2009년 나카츠카 교수님 일행 제 5차 동학전적지 기행(한국 서울, 충주, 보은, 전주, 대둔산, 공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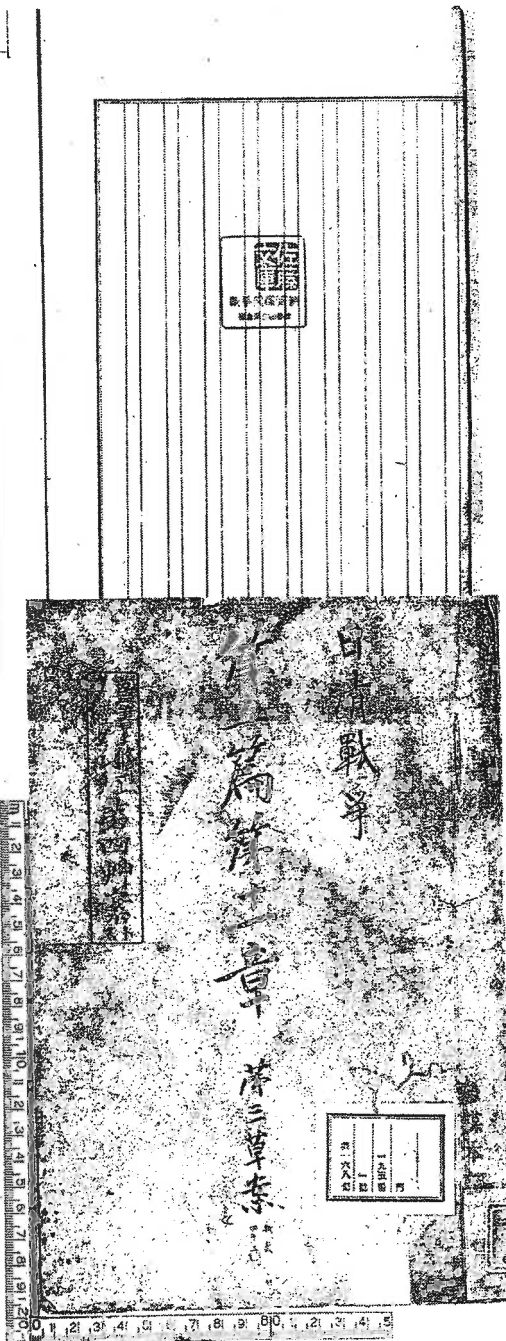
『第五篇第十一章 第三草案』

〈右〉表紙(「藍書ノ修正ヲ經タルヲ第四草案トス」という印が押されている)

〈上〉第一ペー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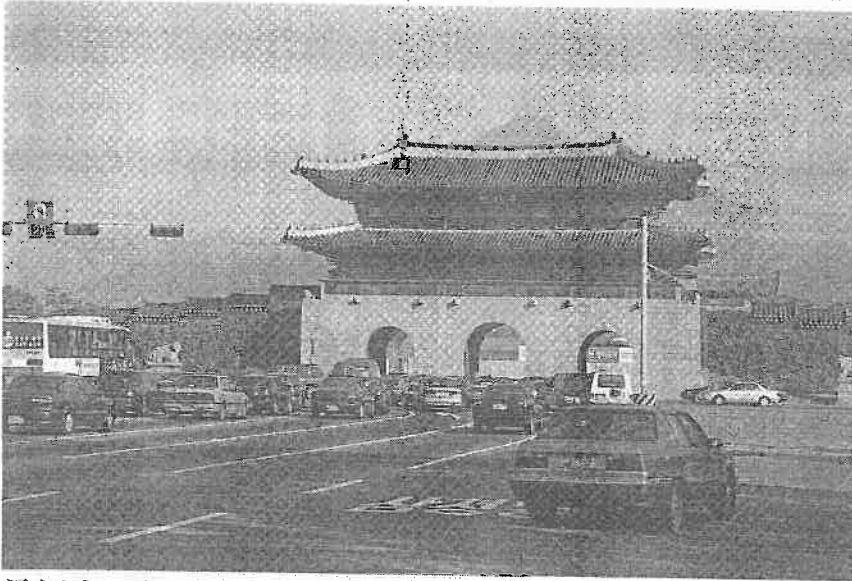
『日露戦史編纂綱領』他の表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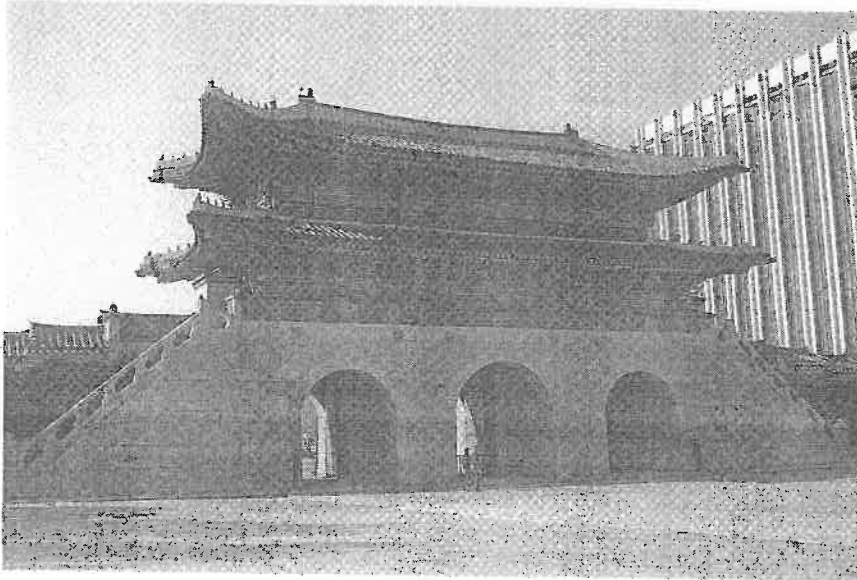
王宮・景福宮の門 (1997年10月——福井理文撮影)

光化門

◇かつてはこの門のすぐ後ろに日本統治時代の朝鮮総督府の建物が王宮を包囲するように建っていたが、「光復50年」を迎えた1995年8月16日に撤去工事が開始され、いまは姿を消した。そのため後方にそびえる白岳(ハガク、標高342m)が望めるようになっ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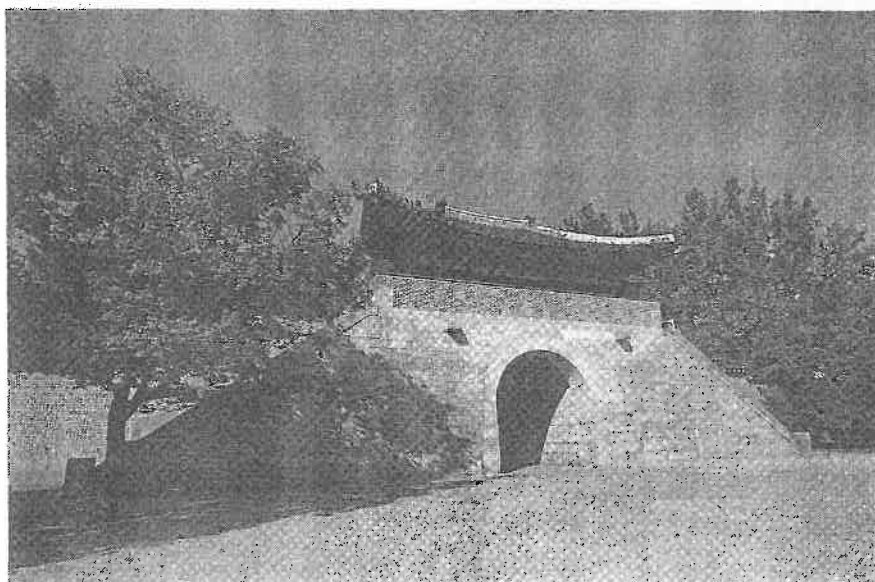
景福宮の側から見た光化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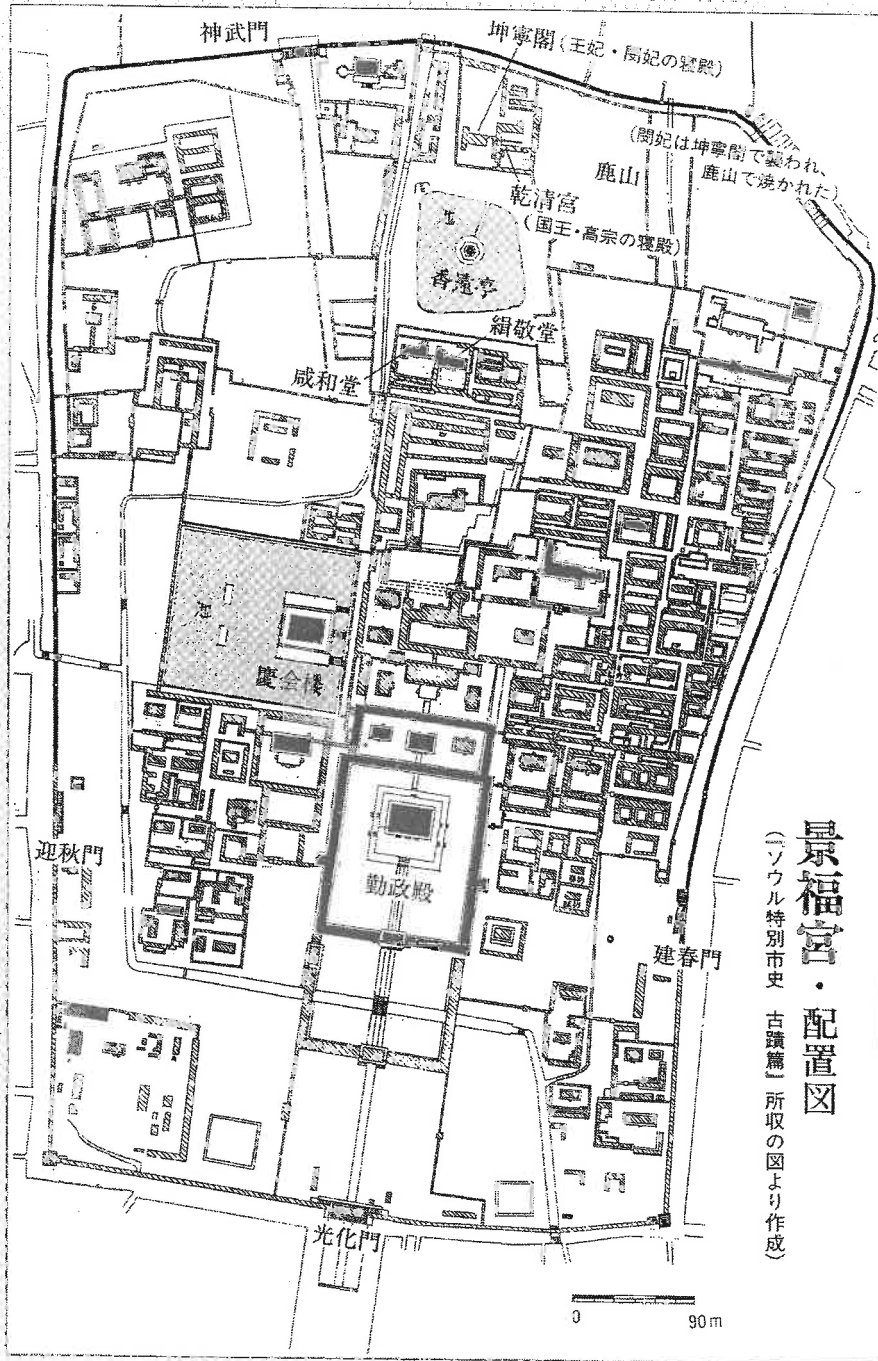


建春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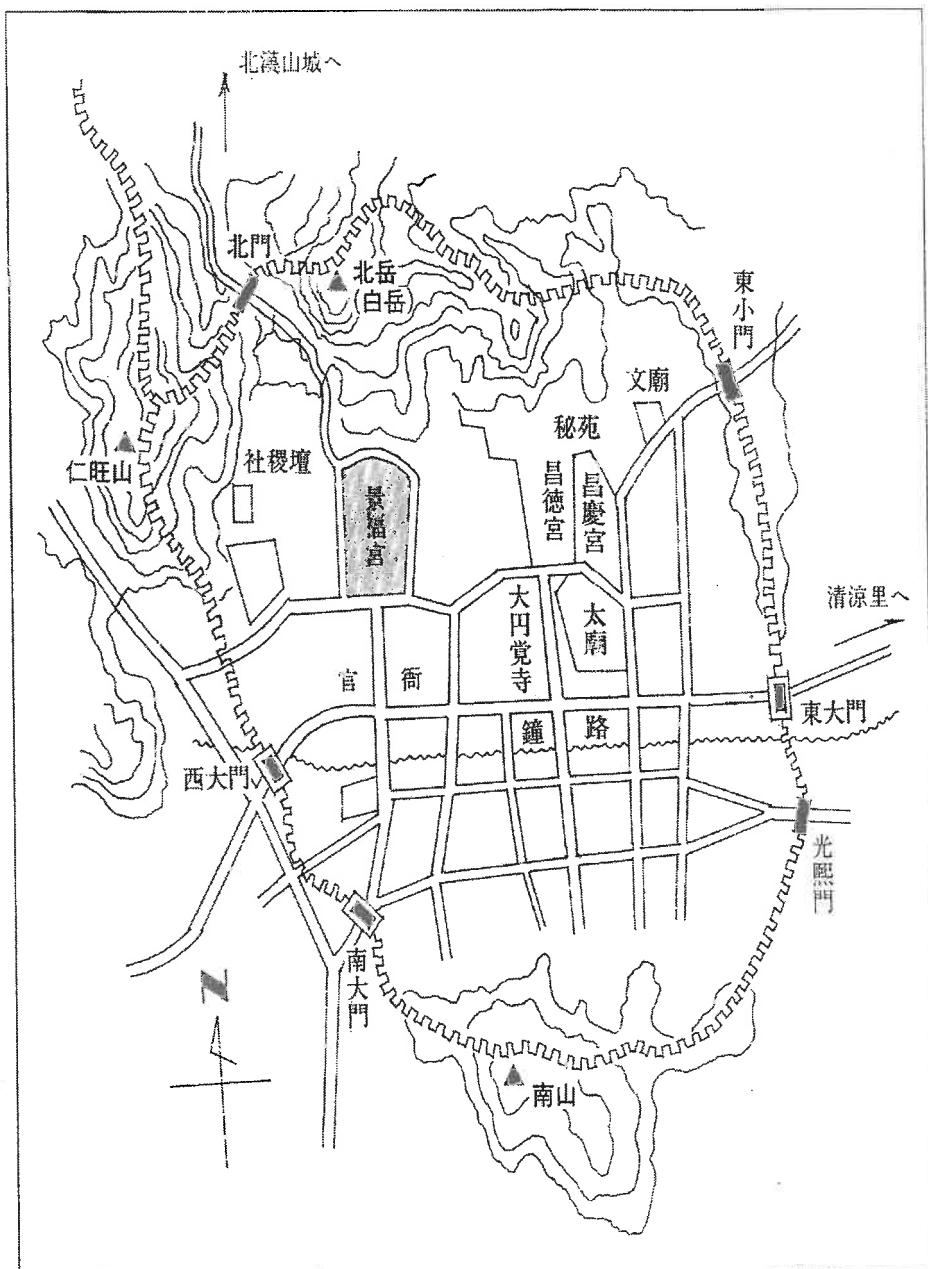
迎秋門





往時のソウル(漢城)概略図

(藤島亥治郎『韓の建築文化』芸艸堂、1976年より)



中塚明先生・朴益洙先生と



日・韓の市民が一緒に行く、

東学農民軍

の跡を訪ねる旅

2009

韓

国

“過去”を直視する旅を共にして
相互理解と東アジアの平和と共生への道を開く

- 2009年10月17日(土)~21日(水)5日間
- 定員25名(10名様より実施)
- 153,000円(10名様以上)148,000円(15名様以上)
上記旅行費用の他に、空港税3,120円、燃油附加費800円、空港施設使用料
2,040円(成田)2,650円(関空)がかかります。費用は発券時の航空レートな
どで変動します。その場合は、差額を返金もしくは徴収いたします。
- 成田・関空同時発着 韓国の方も現地で参加
- 申込締切2009年9月17日(木)
(定員になり次第締め切ります。)



東学農民軍遺址 (金海北道井邑市古堡)

旅の企画・実施

(株) 富士国際旅行社

〇〇〇〇

百年以上も前のことです。朝鮮の支配をめぐって日清戦争(1894~95年)が起こりました。その戦争で日本は清国(中国)に勝ち、やがて朝鮮を植民地にするのに重要な一歩を踏みました。ソウルの王宮占領から始まったこの日清戦争中、当然のことながら、朝鮮では激しい抗日闘争が巻き起こりました。東学農民軍を主力とするものであります。これは近代の日本が、徐々にアジアの諸国に覇を宣うことになる大衆的な抗日運動の最初のひとつでした。ところが日本の歴史教科書は、この東学農民軍の抗日運動について一言も書いていません。日本人は知らないのです。韓国では近年、東学農民軍の名を回復する動きが起まっています。

——今往來の途では、日本人と韓国人が同じ歩み、同じ道で一緒に旅をします。はじめての試みです。歴史の現場を訪ね、現在の日本・韓国の歴史とみる世界の情を握るの一歩、ふた歩はと動いています。

中塚明 東京大学名誉教授
朴益洙 国家歴史、近代日朝歴史専門

中塚明先生・朴孟津先生と 日・韓の市民が一緒に行く、東学農民軍の跡を訪ねる旅2009						
日次	月(曜)	都 市	乗 車 場 所	交 通 機 関	摘 要	宿泊地
①	10月17日 (土)	東京成田空港発 関西国際空港発 仁川空港着 ソウル着	午前 午前 午後 夕刻	前空便 航空便 専用車	空港で合流後、ソウル市内へ ソウル国際ユースホステルにチェック・イン 夕食を食べながら事前勉強会およびミーティング	<ソウル泊>
②	10月18日 (日)	ソウル発 忠州可興 報恩里着 全州着	午前 午前 午後 午後	専用車	午前、ソウル市内見学後、東学農民運動の史跡見学 * 巖福宮 * 日本軍兵站支部の跡 * 鍾谷城閣地(農民軍虐殺地) * 東学記念公園 * 教祖仲冤運動の集会所	B L x
③	10月19日 (月)	全州発 全州着	午前 午後 夕刻	専用車	終日、全州近郊東学農民軍の戦跡見学 * 茂長起首地 * 沙鉢通文謀議場 * 無名東学農民軍慰霊塔 * 廣土峙戦跡地 * 東学農民革命記念館 * 全盛學古宅 * 万石湫 * 白山城 両国参加者・市民交流会(予定)	B L D
④	10月20日 (火)	全州発 ソウル着	午前 午後 夕刻	専用車	陸路、戦跡を巡りながら首都ソウルへ * 東学歴史広場 * 大屯山戦跡地 * 牛禁峙戦跡地(東学革命軍慰霊塔) 夜、ソウル到着後、まとめの集会	B L x
⑤	10月21日 (水)	仁川空港発 仁川空港発 東京成田空港着 関西国際空港着	午前 午前 午後 午後	専用車	出発まで、自由行動 ソウルでさらに延泊したい方は、その旨お申し出下さい。航空便・ホテルについてはご相談の上、ご希望に添えるよう手配いたします(料金が変わる場合がございます)。	B x x
B=朝食付、L=昼食付、D=夕食付、機=機内食 OP=オプション・ツアー(希望者参加の小旅行、別途料金)						

利用予定航空会社

大韓航空、アシアナ航空、全日空、日本航空

利用予定施設

ソウル:ソウル国際ユースホステル
全州:コアアペラホテル



参考文献

旅行記の頁にも...

*現代日本の歴史認識～その自覚せざる欠落を問う

中塚明(著) 高文研 2,400円

*これだけは知っておきたい日本と韓国・朝鮮の歴史

中塚明(著) 高文研 1,300円

*未来を問う歴史(第2版) 東アジア3国の近代史

日中韓3国共同歴史教育財団(編著) 高文研 1,600円

*「五月の光州」が私に残したもの

朴孟津(著)中塚明(訳) 『みずす』2007年4月号論文
みずす書房 315円

*東学農民革命100年

朴孟津(著) 高文研
ついで書房発行、れんが書房新社発売 4,200円



東京国際旅行社

〒160-0022 東京都新宿区新宿2-11-7 智恵ビル4階

TEL: 03-3357-3377 FAX: 03-3357-3317

担当: 岡田/高橋

http://www.tokai-jp.com

• 한국은 동북한 아시아 제국과 대립, 세계와 대립 때문
노인전쟁 승리 미행지지 않으면 불가 → 작은 북방권
→ 더 큰 권 → 원통이 없어 (원통 2인의 권제·남하
영향력 억제) 때문 - / 미국 - 일본에 쟁전 - 무함, 한국
(루즈벨트)
중국 동남아 세계 전체 때문 → 중국 때문

병합, 통치 → 정리된 통치가 있음 / 병탄 -
노골 / 항방 - / 강점 국화상탄

화해가 가능한가! - 일 정부와 사실이
바탕으로 구체적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이
화해가 달려 있다 / 일본 침략이 전후이
되었다. 등 /
부분적으로 일본에 비해 국력화 -
일본 정책과 중국을 바꿀 때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 일본의 수익 - 세계
에서 모든 나라에서 근심 - 독일은
화해 역사교과서는 공동 제작 -
작은 섬에 사는 국민 시마즈민은 섬
- 일본 - 일본 국민 - 사실 화해 문제를
일본정부 노골 - 인식 - 화해